

세계 유명 觀光地 여행객이 망친다

에베레스트는 쓰레기場, 이집트유적도 훼손 심각

이집트의 룩소르 사원에서는 섬세한 그림과 글씨가 새겨진 고대 회벽에 대고 10代들이 아무렇지 않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에베레스트산 기슭 등산로를 따라 한 무리의 등산객들과 그들의 가이드가 몇 그루의 앙상한 나무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아 쉬고 있다. 쓰고 버린 산소통, 깨진 유리조각, 화장지 더미가 근처 땅바닥에 널려 있다. 美 국립공원관리국에서는 뉴욕항 내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관광객들이 버린 껌을 제거하는 일만 전담하는 직원을 한 사람 고용했다. 그리고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매연을 뿜어대며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시끄러운 소형 밴들을 피해 치타들이 낮시간 사냥 스케줄을 변경해야만 했다.

올해 海外여행자 4억명 예상

요즘은 어느 면에서 소풍 물, 쓰레기장이나 교통지옥이 아닌 휴양지를 찾기는 힘들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 관광업체가 이제 큰 호경기를 맞아 약 2천3백억달러의 연간 수입을 올려 세계무역 총액의 6%를 점유하고 있다. 1950년 해외여행자 수가 2천5백만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금년에는 약 4억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세계 중산층 사이에 富가 확

산된 데다 수송수단이 빨라지면서 비용은 더 싸져 先代들이 지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곳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게 됐다. 원시림 한가운데 패스트푸드 판매대가 속속 들어서고 고대 유적지들은 기념품점으로 변했다. 외진 정글 속에도 배선·배관을 통해 물과 전기가 공급됐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환경과 현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관광에는 훼손이 따르기 마련이다. 걷는 것과 쉬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보물들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13세기 코스마티 포장이 하루 1만7천명이나 되는 관광 인파에 닳고 닳아 이제는 1년에 겨우 며칠씩만 보호 덮개를 벗겨낸다. 북부이집트에 있는 투트왕의 작은 묘지에서도 마구 밀려드는 인파로 묘지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한 곰팡이가 고대의 흰색·갈색·노란색 벽화를 변형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이집트 정부는 이 묘지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집트의 3개 대형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들에 위치는 기자고원의 관리책임자인 자히하와스는 『우리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관광객들과 그들의 달러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유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관광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현지 문화, 특히 개발도상국의 현지문화다. 많은 관리들이 관광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떠받들고 있지만 실상은 관광지의 국가보다 오히려 관광객의 국가가 더 득을 본다.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적어도 60%는 그 관광객의 본국에 남는다고 관광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호텔·레스토랑·위락시설의 건설로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단순 低賃職들이다. 게다가 관광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현지 관습이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있다. 일례로 과테말라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밝은 색을 마야 직조물을 만드는 여자들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과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카트만두의 경우 관광객들이 강둑을 따라 벌어지는 성스러운 화장의식에 참석해 현지 네팔 사람들이 애도하는 동안 몰상식하게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도 한다.



자본이 부족한 각국 행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관광지 개발을 독려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관리들이 학교와 같은 기본시설에서 관광 개발 목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까지 한다. 현재 유럽인들에게 휴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 서남해안의 작은 고아주에서는 관광센터의 샤워, 수세식 화장실, 수영장, 세탁기, 그리고 흡연을 데 없이 조경된 정원에 가뜩이나 부족한 이 지역의 물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탓에 현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한 시간씩만 물이 공급되기도 한다. 관광

재해에 대한 경고도 종종 마이동풍이 되고 만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卿이 네팔 당국에 5년간 에베레스트산을 폐쇄하여 휴식을 주도록 탄원했지만 묵살됐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로열티(9인 탐험대 당 최소 1만달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선 관람객 수를 제한

그러나 관광 당국자들이나 정부 관리들은 세계의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광산업도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히말라야산맥의 작은 부탄 왕국은 그들의 단순하고 평화로운 문화가 파괴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외국 관광객 수를 매년 2천명 선으로 제한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다. 그렇게까지 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혼잡과 파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매년 4천만의 관광객이 찾아와 옛 목조 가옥·적, 그리고 神社가 늘어선 좁은 거리를 거니는 일본의 고대 수도 京都의 경우 소음과 대기오염이 극심해지자 西芳寺에서는 인기있는 庭園의 관광객 수를 현재 하루 8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 고대유물 기구는 케오프스 피라미드의 입장료를 올리고도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억제하지 못하자 그들의 호흡으로 생기는 습기를 줄이기 위해 환기시스템을 설치했다.



관광 재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점차 지지를 얻고 있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또는

녹색·低영향·환경보전(sustainable)투어리즘 등으로 알려진 환경에 민감한 관광분야일 것이다. 에코투어리즘의 주창자들은 관광의 해악이 최소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필수 장비만 갖춘 여행에 환경교육을 병행하여 환경의식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식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되도록 현지 안내자와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현지 경제를 번창하게도 한다. 그러나 비용이 적게 들지도 않을 뿐더러 늘 유쾌한 것도 아니다. 수천달러의 비용으로 관광객들은 예컨대 브라질 雨林 한 부분을 여행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모기장은 있지만 전기나 급수가 없는 사방이 트인 오두막에서 생활한다(음식도 좋고 매트리스도 꽤 편안할 수는 있지만), 에코투어리즘의 지지자들은 자연과의 교류, 도시생활에서의 탈피, 야생동물 구경(자연보호 정신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다는 것에 대한 자아만족은 말할 것도 없고) 등이 여행을 통해 받는 보상이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에코투어리즘으로 活路 모색

전세계의 여행사와 관광지 당국은 몇몇 에코투어리즘 원칙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다. 네팔당국은 「자연보호 여행 선언」을 발간, 널리 배포했다. 이 선

언은 관광객들에게 (라이터로)화장지를 소각하고 여행 도중 나무를 연료로 한 온수샤워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립공원 관리들은 관광객들에게 미니밴에서 내려 걸거나 말이나 낙타를 타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코끼리와 코뿔소를 찾아 숲속을 헤매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의 전원을 즐기는 것이 관광객의 미덕이라고 권장한다. 일본의 일본여행(株)은 자연 및 문화여행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관광과 제3세계」, 「관광·유산, 그리고 환경」등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대학들도 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몇 과목의 강의와 낙타 몇 마리 타는 것으로 수세기에 걸친 관광 재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실상 관광이 환경에 입힌 손상은 더 큰 환경 피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광으로 야기된 문제들은 에너지정책, 수자원 보존, 해양 보존, 정치적 탄압등 우리 시대의 다른 큰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투어리즘콘선」이라는 영국 감사단체의 공동 설립자 엘리스 스탠클리프는 말한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관광객은 별로 없다. 휴가여행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여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찾아갈 만한 곳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News Week 1992. 7]

자연은 말이 없으나 너그럽습니다. 자연은 험준하나 풍요롭습니다. 검푸른 산봉우리가 구름속에 스치며 먼 천상의 섬들 처럼 신비롭게 떠 오릅니다.

분명 이 세상의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듯이 보이는 풍경—국립공원

[우리 것을 찾아서, 설악산(金正明 製作) 중에서]